



(사)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정직한 그리스도인·신뢰 받는 교회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 ☎ 04382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54길 30 401호 🌐 cemk.org ☎ 02-794-6200 ☎ 02-790-8585 ✉ cemk@hanmail.net

담당자 : 박제민 팀장 (070-7019-3755, cemk@hanmail.net)

문서번호 : 기윤실(보도)2019-0607-01 날짜 : 2019년 6월 7일(금)

발신 :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공동대표

수신 : 기독교언론, 종교부, 사회부, 문화부 담당기자 귀하

[기윤실 성명서]

한기총은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 한기총 시국선언문, 논평 가치 없지만... 스스로 “대표” 표현 우려
- ‘한기총 해체 운동’ 이후 대거 탈퇴, 일부 군소 교단·단체만 남아 대표성 없어
- 현재 한기총은 이단들의 지위세탁 공간, 정치 욕망과 이념 전파의 활동 무대
- 일부 정치세력과 언론, 한기총을 한국 교회와 연결 시켜 활용·보도 중단해야
- 제대로 예수의 정신을 실천하는 곳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길

한기총은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이 지난 6월 5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를 포함한 주요 권력기관들을 주체사상으로 정복하여 대한민국을 종북화·공산화 시키고 있으며, 경제도 사회주의화 시켜 1970년대 수준으로 몰락시키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하야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내용들은 사실 관계도 맞지 않을 뿐 더러 아무런 논리적 구성도 갖추지 못한 그야말로 막말만 늘어놓은 것이기에 논평의 가치도 없는 것들이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것은 한기총이 스스로를 “6만 5천 교회 및 30만 목회자, 25만 장로, 50만 선교

가족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는 전혀 사실과 부합하지 않다. 한기총이 2010년대 초까지 한국 교회 대부분의 교단과 주요 기독교 단체들이 소속된 기독교 최대의 연합단체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한기총이 교회연합단체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정치화·이념화·사조직화 되면서 기독교 내부의 신뢰를 잃고 있는 상황에서, 2011년 초에 대표회장 선거에서 광범위한 금권선거 실태가 드러나면서 '한기총 해체 운동'이 범기독교 진영에 시작되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지속된 이 운동의 결과 예상통합을 비롯한 주요 교단들과 월드비전 등 주요 기독교 기관들이 한기총을 탈퇴하거나 '행정보류' 상태로 정식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

현재 한기총에는 한국 교회 내 지극히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군소 교단들과 단체들 일부가 남아있는 상태로 한국 교회 연합 조직으로서의 대표성은 잃어버린 지 오래 되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한기총은 한국 교회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판정을 받은 단체들의 지위 세탁 공간이나, 개인적인 정치 욕망이나 극단적인 이념 전파를 위해 기독교의 이름의 이름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활동 무대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한기총이 한국 교회 연합 조직으로서의 대표성을 잃어버리고 극단적 정치 이념 단체로 변질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극단적인 혐오나 이념지향적인 발언을 하면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한기총의 활동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으로 도구로 활용하려는 일부 정치 세력과 언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들 일부 정치 세력과 언론들은 한기총이 한국 교회를 대표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극단적인 혐오나 이념지향적 발언들을 확대시켜줌을 통해 한국 교회 내 많은 성도들을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 아래로 두려고 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한기총은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더 극단적인 혐오와 이념지향적 발언들을 쏟아낼 것이다. 그렇지만 책임 있는 정당과 언론이라면 우선 한기총이 한국 교회를 얼마나 대표하고 있는지 실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기총의 발언들이 실제 한국 교회 교인들의 생각을 얼마나 대표하고 있는지도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한기총이 실제로 한국 교회를 제대로 대표하고 있지 않음이 드러난다면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던 최소한 그 이야기와 한국 교회를 연결시켜서 활용하고 보도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한기총은 한국 교회 내에서 지극히 작고 극단적인 소수의 집단에 불과하다. 그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전혀 담아내지 못하는 극단적인 이념 집단에 불과하다. 그리고 한국 교회 내에는 실제로 한국

교회를 상당 정도 포괄하는 연합 조직도 있으며, 예수의 정신으로 우리 사회 곳곳의 어두움을 밝히며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고 있는 단체들도 많이 있다. 그들이 진정으로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조직들이다. 정당이든 언론이든 진정으로 한국 교회의 지지를 받고, 또 한국 교회가 가진 사랑과 정의의 힘으로 우리 사회를 보다 선하게 바꾸어가기 원한다면 한기총과 같은 예수의 가르침에서 떠난 극단적 이념 단체를 이용하려는 자세를 버리고 제대로 예수의 정신을 실천하며 한국 교회를 대변하는 단체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2019년 6월 7일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